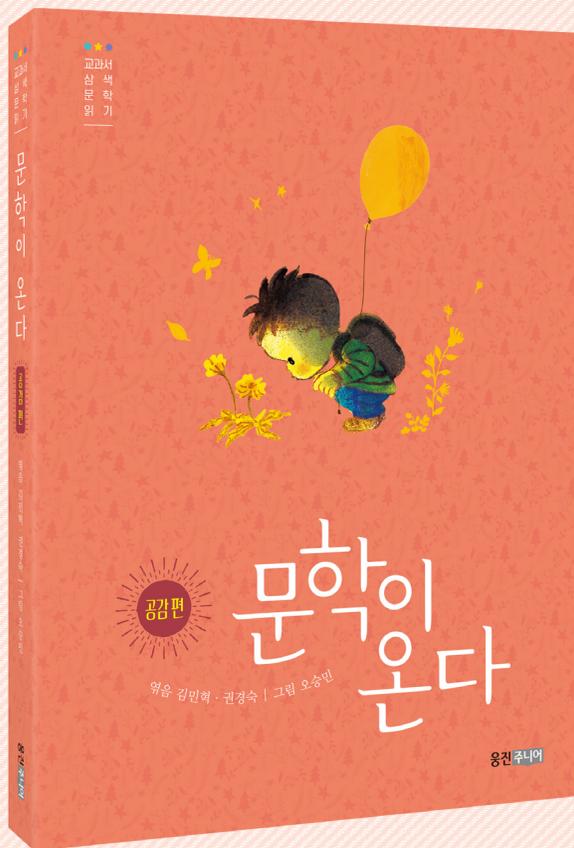


독서수업
지도안

초등학교 6학년

문학이 온다 공감편 독서 워크북



김민혁 · 권경숙 엮음 | 오승민 그림

■ 책 소개

『문학이 온다』 시리즈는 현직 국어 선생님들이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가려 뽑았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 문학, 고전 문학뿐 아니라 외국 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되는 ‘감상 수업’과 ‘질문 수업’을 마련했습니다. ‘감상 수업’은 작품에 대한 지식을 알려 주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작품을 읽은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감상을 제시하는 데 우선하였고, ‘질문 수업’은 독자가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작품을 읽으면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에 감정이 이입되고,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공감 편’은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을 키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습관을 가지게 해 줄 것입니다.

■ 주요 독후활동



독서 전

 **국어 교과 | 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제목, 앞뒤 표지, 머리말

책의 제목, 앞뒤 표지의 글귀, 그림을 살펴보세요.

1. 책의 앞표지 그림에 나타난 인물과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룰지 예상해 보세요.

인물	
배경	

(2~3) 『문학이 온다 : 공감 편』의 뒤표지에 쓰여 있는 글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세요.

문학 작품은 왜 읽어야 할까요?

시를 통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상상력에 흠뻑 빠질 수 있습니다. 소설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지닌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며 사람들이 겪는 다양한 갈등과 고민을 접하며 삶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필을 통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①과학 기술이 발달한 미래는 지식보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면에서 청소년들에게 문학 작품 읽기는 더욱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문학이 온다』를 펴내며' 중에서

2. 윗글의 밑줄 친 ①에서 미래는 지식보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써 보세요.

⇨

3. '공감'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문학 작품이 있나요? 작품의 제목과 간단한 내용을 서술해 보세요.

⇨

독서 후

 **책 속으로** ① 마음에 울림을 주는 문학 작품

1. 책의 목차를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 문학 작품을 고른 후 그 이유를 써 보세요.

『문학이 온다 : 공감 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이다.

왜냐하면,

2. 『문학이 온다 : 공감 편』에서 타인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등장인물에게 ‘공감상’을 주고 싶습니다. 상을 받을 등장인물을 정하고, 이유를 써 보세요.

⇨

 **책 속으로** ② 시어의 상징적 의미

※ 시 「넌 바보다」에서 발췌한 다음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넌 바보다

너는 참 바보다. (중략)

- 신형건

그까짓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썩던 껌을 아무 데나 댄, 빨지 못하고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 바라보는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으로 달려가는

너는 참 바보다. (중략)

너는 참 바보다.

개구멍으로 속 빠져나가면 금방일 것을

-그럼, 난 뭐냐?

비잉 돌아 교문을 다니는

그런 네가 좋아서 그림자처럼

너는 참 바보다.

네 뒤를 줄줄 따라다니는

얼굴에 검댕 칠을 한 연탄장수 아저씨한테

나는?

쓸데없이 꾸벅, 인사하는

1. 이 시에서 말하는 이(화자)는 ‘너’를 어떤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를 그렇게 생각한 이유와 함께 써 보세요.

⇨

2. 여러분이 이 시의 시인이자면 ㉠에 어떤 시어를 넣을 것인지 이유와 함께 써 보세요.

⇨

독서 후

 **책 속으로** ③ 서술자의 시점에서 내용 이해하기

※ 소설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주요 사건을 요약해 정리해 보세요. 서술자인 어린아이 옥희의 생각과 등장인물들의 생각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서 써 보세요.

주요 사건 정리	옥희의 생각	등장인물의 생각
(예) 옥희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구인 아저씨에게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꺼내지만, 아저씨는 얼굴을 붉히며 그런 말을 하면 못쓴다고 대답한다.	옥희는 아저씨가 화가 났다고 생각한다.	아저씨는 옥희 어머니를 좋아하는 마음이 들길까 봐 부끄럽다.



--	--	--



--	--	--



--	--	--



--	--	--

독서 후

💡 책 속으로 ④ 소설의 배경과 등장인물의 가치관

※ 소설 「사랑손님과 어머니」에서 발췌한 다음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가) 어머니가, “야, 또 어디 나가지 말구 사랑에 있다가, 선생님 들어오시거든 상 내가야지.” 하고 말씀하시니까, 외삼촌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제길, 남 어디 불일이 있는 날은 으레 끼니때에 안 들어오고 늦어지니”

하고 툭툭하겠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러니 어짜갔니? 너밖에 사랑 출입할 사람이 어디 있니?”

“누님이 좀 상 들구 나가구려. 요새 세상에 내외합니까!”

어머니는 갑자기 얼굴이 발개지시고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외삼촌을 향하여 눈을 흘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은 흥흥 웃으면서 사랑으로 나갔지요.

(나) “옥희야, 옥희 아버지는 옥희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돌아가셨단다. 옥희두 아빠가 없는 건 아니지. 그저 일찍 돌아가셨지. 옥희가 이제 아버지를 새로 또 가지면 세상이 욕을 한단다. 옥희는 아직 철이 없어서 모르지만 세상이 욕을 한단다. 사람들이 욕을 해. 옥희 어머니는 화냥년이다 이리구 세상이 욕을 해. 옥희 아버지는 죽었는데 옥희 아버지가 또 하나 생겼대. 참 망측두 하지. 이리구 세상이 욕을 한단다. 그리 되문 옥희는 언제나 손가락질 받구. 옥희는 커두 시집두 훌륭한 데 못 가구. 옥희가 공부를 해서 훌륭하게 돼두, 에 그까짓 화냥년의 딸, 이리구 남들이 욕을 한단다.”

1.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남녀 간 자유연애가 힘들었던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가)와 (나)를 참고하여, 재혼에 대한 어머니와 외삼촌의 가치관이 어떻게 다를지 추측해서 써 보세요.

어머니의 가치관	
외삼촌의 가치관	

2. 「사랑손님과 어머니」에서 옥희의 어머니는 과부라는 자신의 처지와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아저씨와의 재혼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옥희 어머니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나요? 입장을 정해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 보세요.

옥희의 어머니가 재혼을 포기한 것은 (옳은 / 옳지 않은) 선택이다.
왜냐하면,

독서 후

 **책 속으로** ⑤ 이타적인 행위란 무엇일까

※ 다음 두 편의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우리가 눈발이라면 -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쭈뼛쭈뼛 훑날리는

①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②함박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살이 되자

(나) 나룻배와 행인 - 한용운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밭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

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

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

십니다그러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이하 생략)

1. (가)에서 밑줄 친 ①의 진눈깨비 같은 사람과 ②의 함박눈 같은 사람은 각각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풀어 써 보세요.

2. (나)에서 말하는 이(화자)인 나룻배는 당신인 행인이 흙밭로 자신을 짓밟는 순간에도 행인을 태우고 강을 건넵니다. 나룻배가 행인에게 보이는 희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독서 후

💡 감상과 질문 ① 참 힘센 말

1. 시 「참 힘센 말」을 읽으며, ‘요즘 누군가에게 자주 듣는 말,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힘센 말’을 생각해 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도 함께 써 보세요.

참 힘센 말 말은 힘이 세지, 정말 힘이 세지. 짐수레를 끌고 따각따각 달리는 말보다 말은	힘이 더 세지. - 정진아 “미안해.” 한마디면 서운했던 생각이 멀어지고 화난 마음 살살 녹지. “잘할 수 있어.”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지고 없던 힘도 불끈 솟지.
--	---

요즘 내가 누군가에게 자주 듣는 말	
내가 누군가에게 듣고 싶은 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힘센 말	

2. 수필 「괜찮아」에서 발췌한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여러분은 언제 자신에게 ‘괜찮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지 자신의 경험을 써 보고, 그때의 ‘괜찮다’는 말은 어떤 의미였는지 설명해 보세요.

“괜찮아.” 무엇이 괜찮다는 건지 몰랐다. 돈 없이 깨엿을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묵발을 짓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인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은 그런대로 살 만한 곳이라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

독서 후

💡 감상과 질문 ②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한 존중

※ 『문학이 온다 : 공감 편』에서 발췌한 다음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가) “우선 달갈을 보여 줘야지. 그들이 보고 배운 달갈과는 또 다른 달갈을. 너도 도시에 가서 우리가 보고 배운 달갈의 쓸모와는 전혀 다른 달갈의 쓸모를 배웠지 않니? 너는 네가 새롭게 배운 것에 대해 후회하거나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져선 안 된다. 사물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그 사물의 해아릴 수 없이 많은 쓸모에 대해 골고루 알아 두는 게 좋아. 아마 도시 아이들도 놀랄 거야. 그들이 천대하고 웃음거리로 삼던 달갈이 얼마나 값어치 있게 쓰여지는가를 알면.” (중략)
“도시 아이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만나 가슴을 울려주길 기회는 좀처럼 없을걸. 그런 경험을 놓치고 어른이 되어 버리면 너무 불쌍하지 않니. 바로 그런 소중한 경험을 너희들은 도시 아이들한테 베풀 수가 있어. 달갈로 말이다.”

(나) 귀뚜라미 - 나희덕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 아직은 노래 아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 있다
귀뚜르르 뚜르르 보내는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지금은 매미 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그 소리 견히고 맑은 가을이
어린 풀쭉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발길에 눌러 우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1. (가)는 소설 「달같은 달갈로 값으렴」의 주인공 한희에게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한희가 깨달은 점은 무엇일까요?

⇒

2. (나)에서 말하는 이(화자)인 귀뚜라미의 ‘울음’은 아직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자신이 살아 있음을 알리는 타전 소리일 뿐입니다. 이 시에서 귀뚜라미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

3. 한희의 ‘달갈’과 귀뚜라미의 ‘노래’처럼 여러분이 현재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소중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답해 보세요.

⇒

독서 후

💡 감상과 질문 ③ 이웃 간의 소통과 관심

※ 소설 「소음공해」에서 발췌한 다음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가) 경비원의 전갈이었다. 염려 마시라고? 다분히 도전적인 의의가 느껴지는 전언이었다. 게다가 드르드르 소리는 여전하지 않은가. 이제 한판 싸워 보자는 애긴가. 나는 인터폰을 들어 다짜고짜 909호를 바꿔 달라고 말했다. 신호음이 서너 차례 울린 후에야 신경질적인 젊은 여자의 응답이 들렸다. / “아래층인데요. 댁이 그런 식으로 말할 건 없잖아요? 나도 잠을 만큼 잤답니다. 공동 주택에는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잖아요. 난 그 소리 때문에 병이 날 지경이에요.” / “여보세요, 난 날아다니는 나비나 파리가 아니에요, 내 집에서 맘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나요? 해도 너무 하시네요. 이틀거리로 전화를 해 대시니 저도 피가 마르는 것 같아요. 절뚝거리 어찌러는 거예요?”

(나) 선물도 무기가 되는 법. 발소리를 죽이는 폭신한 슬리퍼를 선물함으로써 소리를 죽이려는 메시지와 함께 소리로 인해 고통 받는 내 심정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리라. 사려 깊고 양식 있는 이웃으로서 공동생활의 규범에 대해 조곤조곤 타이르리라. / 위층으로 올라가 벨을 눌렀다. 안쪽에서 누구세요, 묻는 소리가 들리고도 십 분 가까이 지나 문이 열렸다. ‘이웃사촌이러는데 아직 인사도 없이……’ 등등 준비했던 인사말과 함께 포장한 슬리퍼를 내밀려던 나는 첫마디를 뺄 겨를도 없이 우두말쳤다. 좁은 현관을 꼭 채우며 휠체어에 앉은 젊은 여자가 달갑잖은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 “안 그래도 바퀴를 갈아 불 작정이었어요. 소리가 좀 덜 나는 것으로요. 어쨌든 죄송해요. 도와주는 아줌마가 지금 안 계셔서 차 대접할 형편도 안 되네요.”

여자의 텅 빈, 허전한 하반신을 덮은 화사한 빛깔의 담요와 휠체어에서 황급히 시선을 떼며 나는 할 말을 잃은 채 슬리퍼 든 손을 등 뒤로 감추었다.

1. 「소음공해」에서 주인공 ‘나’는 한 달 전부터 소음에 시달리지만 직접적으로 위층 사람과 대화하는 대신 인터폰으로 경비원에게 말을 전하고 전달 받았습시다. (가)에서 위층의 젊은 여자와 주인공 ‘나’의 태도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

2. 이웃의 어려운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3. 여러분도 이웃의 소음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소음에 대처하고 싶은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써 보세요.

⇨

독서 후

 **창의융합** 자신을 아는 것과 타인을 이해하는 것

※시 「별 헤는 밤」에서 발췌한 다음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별 헤는 밤 - 윤동주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 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했던 아이
들의 이름과, 패,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
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
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
아지, 토끼,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히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서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 보고,
흙으로 덮어 버렸습니다.

만은 밤을 새워 우는 별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외다.

1. 「별 헤는 밤」에서 말하는 이(화자)는 별을 바라보며 친구를 회상하고,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창씨개명을 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나 지금이나 가장 그리운 대상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와 함께 적어 보세요.

⇨

2. 이 시를 쓴 시인 윤동주는 일제 강점기 동포들이 전쟁터에서 죽음에 내몰릴 때, 지식인으로서 편한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합니다. 자신에 대해 잘 아는 것과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써 보세요.

예시답안과 가이드

■ 독서 전

1. (예시답안)

- 인물 : 어린아이 한 명이 웅크리고 앉아 노란색 꽃을 관찰하고 있다. 문학 작품집의 주제가 ‘공감’인 점으로 보아, 작품에서 등장인물들이 타인의 상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그려질 것 같다. 좌절, 실망, 질투 등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
- 배경 : 표지의 귀퉁이에는 ‘교과서 삼색 문학 읽기’라는 단어가 있다. 아마도 ‘공감’이라는 주제를 주황색으로 표현한 것 같다. 표지의 배경이 되는 주황색은, ‘따뜻함, 밝음, 상큼함’ 등을 떠올리게 한다. 따뜻한 햇살을 품고 잘 익은 귤처럼 잘 여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관심과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 책에서 펼쳐질 것 같다.

2. (예시답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 과학 기술은 인간의 사고와 생활 모습, 나아가 사회의 구조까지 변화시킬 것이다. 인공 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통해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창의성과 관련된 인간 고유의 영역들이 중요해질 것이다. 한편 기술의 발전은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때문에 소통, 나눔, 배려 등의 가치를 전파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진다. 이와 같이 인간에 대한 이해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밑바탕이 되므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닐 것이다.

3. (예시답안)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가 오른다. 개미의 세계를 통해 인간의 세계를 떠올리게 하는 소설로,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혀 외로움을 느끼는 인간의 모습을, 유리병 속에 갇힌 개미에 비유한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책을 읽은 후에 개미와 같은 작은 생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공감이라는 주제와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문학이 온다 공감 편

▣ 독서 후

❖ 책 속으로 ① 마음에 울림을 주는 문학 작품

1. (예시답안) 『문학이 온다 : 공감 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개 기르지 맙시다」이다. 왜냐하면 개를 쉽게 입양하고 쉽게 버리는 상황이 안타깝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주인에게 버림받은 개가, 유기견 보호 센터 사람들이 구조하기 직전까지 이사를 가 버린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텔레비전에서 보게 되었다. 그래서 개를 입양하는 건 가족을 하나 더 만드는 것과 같다는 글쓴이의 말에 많은 공감이 되었다.

2. (예시답안) 내가 ‘공감상’을 주고 싶은 등장인물은 「나무들의 그림자」에 등장하는 나무들이다. 나무들은 겨울에는 발밑 언 땅이 햇살 한 올이라도 더 받게 하려고 그림자를 작게 줄이고, 여름이 되면 발밑 벌레들이 뜨거운 햇살에 데기라도 할까 봐 그림자를 크게 부풀린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나무들의 배려 정신을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감상’을 나무들에게 주고 싶다.

❖ 책 속으로 ② 시어의 상징적 의미

1. (예시답안) 「넌 바보다」에서 말하는 이(화자)는 착한 마음을 지닌 친구를 바보라고 표현하고 있다. 조금 바보 같더라도 순수한 마음을 가진 친구를 ‘나’는 사랑스럽게 생각하며, 착한 친구가 ‘나’의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

2. (예시답안) 내가 시인이자라면 ‘비둘기’라는 시어를 넣을 것 같다.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비둘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친구라면 숲에 둥지를 틀지 못하고, 편히 쉴 곳도 없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비둘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다.

예시답안과 가이드

❖ 책 속으로 ③ 서술자의 시점에서 내용 이해하기(예시답안)

주요 사건 정리	옥희의 생각	등장인물의 생각
옥희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구인 아저씨에게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꺼내지만, 아저씨는 얼굴을 붉히며 그런 말을 하면 못쓴다고 대답한다.	옥희는 아저씨가 화가 났다고 생각한다.	아저씨는 옥희 어머니를 좋아하는 마음이 들킬까 봐 부끄럽다.



예배당에서 아저씨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는데, 아저씨는 옥희를 못 본 척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는 옥희를 잡아당겨 앉힌다.	아저씨와 어머니가 화가 났다고 생각한다.	아저씨와 어머니는 자신들의 관계를 예배당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걱정한다.
--	------------------------	---



옥희는 어머니를 기쁘게 하려고 유치원 교실에서 뽑아 온 꽃을, 아저씨가 갖다 주라고 했다며 어머니에게 준다. 어머니는 꽃을 받고 놀라며, 그런 걸 받아오면 안 된다고 옥희에게 말한다.	자신이 가져온 게 아니라 아저씨가 꽃을 주더라고 거짓말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어머니는 옥희가 준 꽃을 아저씨가 보낸 사랑의 선물로 오해하고 당황한다.
--	--	--



어머니와 옥희가 자기 전에 기도를 할 때, 어머니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옥희는 자신도 줄줄 외우는 주기도문을 어머니가 외우지 못해 우습다고 생각한다.	어머니는 전통적 윤리 의식과 아저씨에 대한 호감 사이에서 갈등한다.
---	---	---------------------------------------



어머니는 아저씨가 떠난 후, 달걀 장수에게 더 이상 달걀 먹는 이가 없다고 말한다.	옥희가 달걀을 좋아하는 걸 잘 아는 어머니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한다.	옥희를 위해 사랑을 포기한 어머니가 아저씨의 흔적을 지우려 한다.
--	---	--------------------------------------

문학이 온다 공감 편

❖ 책 속으로 ④ 소설의 배경과 등장인물의 가치관

1. (예시답안)

어머니의 가치관	어머니는 사랑손님에게 호감이 있지만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으려 하고, 옥희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려 한다. 어머니가 보수적이고, 재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삼촌의 가치관	“요새 세상에 내외합니까?”라고 말하는 점으로 보아, 중학생인 외삼촌은 개방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재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2. (예시답안)

- 옥희의 어머니가 재혼을 포기한 것은 옳은 선택이다. 왜냐하면,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공간은 작은 시골 마을로, 가부장적 윤리관과 과부를 향한 편견이 가득한 곳이었다. 재혼 가정을 바라보는 선입관이 많았던 시대에 어머니와 아저씨가 재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또 다른 갈등이 존재했을 것이다. 또 만약 옥희가 자신의 재혼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어머니로서 죄책감을 느끼고 힘들었을 것이다.

- 옥희의 어머니가 재혼을 포기한 것은 옳지 않은 선택이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관습 때문에 개인적인 사랑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도 구시대적인 결정이기 때문이다. 당시 중학생인 남동생은 시대의 변화를 느끼고 내외하는 관습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어머니가 정말 사랑손님에게 호감이 있었다면, 남성의 재혼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여겼던 당시 사회의 가부장적인 가치관에 맞서 싸웠어야 했다.

❖ 책 속으로 ⑤ 이타적인 행위란 무엇일까

1. (예시답안) 진눈깨비는 비가 섞여 오는 눈으로 옷을 적시고 땅을 질척거리게 만든다. 하지만 함박눈은 포근하게 땅을 덮으며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준다. ‘진눈깨비와 같은 사람’은 사람들을 힘들고 우울하게 하는 존재이지만, ‘함박눈 같은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을 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예시답안과 가이드

2. (예시답안) 말하는 이(화자)인 나룻배는 무조건적인 인내와 희생을 통해 행인에게 자신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행인이 자신을 흠발로 짓밟는 순간에도 행인을 태우고 강을 건넌다. 행인이 오지 않으면 바람과 눈비를 맞는 고통 속에서 행인을 기다리며, 행인이 반드시 다시 자신을 찾아오리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나룻배와 행인」에서 행인인 ‘당신’은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 불교적 진리, 조국의 독립’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나룻배와 같은 무조건적인 인내와 희생이 현실에서 가능할까? 사랑의 본질이 헌신에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룻배의 일방적인 헌신을 행인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위인들의 희생을 마주할 때 그들의 인내와 희생이 고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도 든다.

❖ 감상과 질문 ① 참 힘센 말

1. (예시답안)

요즘 내가 누군가에게 자주 듣는 말	“숙제하고 자.” 잠깐 자려고 했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숙제를 마치지 못했던 경우가 많다.
내가 누군가에게 듣고 싶은 말	“넌 참 괜찮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기 때문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힘센 말	“할 수 있어.” 가까운 미래의 계획을 세울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떠올리면 늘 힘이 되어 주는 말이다.

2. 답안 생략.

(가이드) 수필 「괜찮아」에 등장하는 깨엿 장수는 목발을 옆에 두고 대문 앞에 앉아 있는 나에게 ‘괜찮다’는 말을 합니다. 글쓴이는 그 말이 깨엿을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괜찮다’는 말이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를 하기도 하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한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나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싶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고, 자신에게 하는 ‘괜찮다’는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도 써 보세요.

문학이 온다 공감 편

❖ 감상과 질문 ②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한 존중

1. (예시답안) 소설 「달같은 달같은 갯으렴」에서 주인공 한씨는 자신이 정성껏 키운 달같이 도시에서 천대받는 것을 보고 출세해서 도시 사람들에게 양갓음을 하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가)에서 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도시의 달갈과 시골의 달같이 다르지 않고 모두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즉, 세상의 모든 존재는 처한 환경만 다를 뿐 각자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2. (예시답안) 「귀뚜라미」의 계절적 배경은 여름이다. 여름에 울리는 귀뚜라미의 ‘울음’은 아직 누군가에게 울림을 주는 ‘노래’가 아니다. 귀뚜라미는 가을을 기다리며 자신의 울음소리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될 수 있는 노래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3. (예시답안) 나에게 현재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다. 소중하다는 것은 아껴야 할 정도로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내가 스스로를 사랑해야만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감상과 질문 ③ 이웃 간의 소통과 관심

1. (예시답안) 소설 「소음공해」에서 주인공은 위층에서 들리는 소음에 힘들어하지만, 직접적으로 위층 사람과 대화하지는 않는다. 대신 인터폰을 통해 경비원에게 말을 전하고 전달받았을 뿐이다. 주인공 ‘나’는 평소에 꾸준히 장애 시설에 봉사를 다니며 타인의 어려움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지만, 막상 자신의 집 위층에 살고 있는 여자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해 이웃에 무관심했음을 알 수 있다.

주인공에게 아쉬운 점은 소음이 났을 때 바로 위층에 올라가서 이웃의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위층 여자도 휠체어 바퀴에서 소리가 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웃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 아쉽다.

예시답안과 가이드

2. (예시답안) 「무소유」라는 책을 남긴 법정 스님은 “고독할 수는 있어도, 고립되지는 말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동물이다. 이웃과 소통하고 타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예의를 갖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더불어 살아가기 위함이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3. (예시답안) 이웃 사람이 늦은 시간에 청소기를 돌리면 진동과 소리 때문에 짜증이 났던 경험이 있다. 이웃에게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만약 같은 상황에서 대처를 한다면, 늦은 시간에는 청소기 소음이 크게 들린다고 직접 말하는 방법이 있다. 또는 소음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그 시간에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창의융합 자신을 이는 것과 타인을 이해하는 것

1. 답안 생략.

(가이드) ‘그리운 대상’은 특별하고 인상 깊었던 누군가일 수도 있고, 시간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와 주고받은 편지, 일기장, 처음 나에게 칭찬을 해주신 선생님 등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2. (예시답안) 자신에 대해 잘 안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 특징, 무의식, 행동, 꿈 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는 의미이다. 자신을 관찰하여 잘못된 점을 반성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신에 대해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는 것은 타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역사사지의 정신은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이해하라는 가르침이다. 나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공감한다면, 타인의 상황을 바라볼 때도 좀 더 여유 있게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응진 주니어

값 14,000원



74800



KC 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책 모서리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